

요약

퇴직연금 적립금은 급격히 증가하여 2024년 상반기 400조 원을 초과함.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퇴직연금은 2050년 경에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. 모형별로 살펴보면 퇴직연금 수익률 2% 적용 시 완전적립금모형에서는 2050년, 실태반영적립금모형에서는 2051년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. 따라서, 퇴직연금은 2050년경 최대 규모의 노후소득 적립금이 될 것이므로 이에 부합한 노후소득보장 역할 재정립이 요구됨

-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연간 40~50조 원 증가하면서 2023년 국민연금 기금의 38% 수준인 382조 원에 이르고,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임
 - 국민연금 기금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베이비부머 수급자가 많아지고 저부담·고급여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을 정점으로 하락한 후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됨¹⁾
 - 2023년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비중을 보면 DB형 53.7%, DC형·기업형IRP 26.6%, 개인형 IRP 19.8%를 차지하며, 이직 시 IRP로 이전하도록 하는 제도적 특성으로 IRP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

〈그림 1〉 퇴직연금 적립금과 국민연금 기금 추이



자료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; 고용노동부·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2. 4. 17), “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”; 고용노동부·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4. 5. 16), “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”

〈그림 2〉 퇴직연금 적립금의 유형별 추이



자료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; 고용노동부·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2. 4. 17), “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”; 고용노동부·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4. 5. 16), “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”

1)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·재정추계전문위원회·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(2023), 「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」

○ 퇴직연금 적립금은 수입부문인 보험료, 운용수익과 지출부문인 누수액, 운영비용, 급여지출 등에 의해 결정되며, 이들 변수들의 장기추계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추계할 수 있음

- 보험료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규모²⁾에서 퇴직연금 적용대상 규모를 추정³⁾하고 여기에 퇴직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산출되며, 운용수익은 적립금에 수익률을 곱하여 산출됨
- 급여지출은 수급자 수에 연간 연금액과 수급기간(20년)을 곱하여 산출하되, 누수액 반영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모형으로 추계되며, 운영비용은 모형에 반영되지 않음
 - 완전적립금모형은 정상적인 연금지급 외 적립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추계 방식이며, 실태반영적립금 모형은 완전적립금모형에 중도인출, 이직 시 해지와 같은 적립금 누수 상황을 반영한 추계 방식임
- 추계기간은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6년에 시작하여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설정한 추계기간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로 함

〈표 1〉 주요 변수 추정식 및 가정

구분	변수	산출방식 및 가정치
수입 부문	보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입자 수 × 임금소득 × 보험료율(8.33%) - 가입자 수: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추정치 × 조정률 × 퇴직연금 가입률 - 임금소득: 1인 이상 전산업 평균소득* * 2006~2022년 1인 이상 전산업 평균소득 실적치 * 2023년 이후는 2022년 소득 × 명목임금상승률('22~'93년: 4.9~3.5%)
	운용수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용수익 = 적립금 × 수익률 - 적립금 = 보험료 + 전기적립금 - 수익률: ('06~'23년) 5.8~5.26% ('24년 이후) 1인 2.0%(퇴직연금 평균수익률), 2인 4.9~4.5%(국민연금 장기수익률*) * '23~'30년 4.9%, '31~'40년 4.6%, '41~'60년 4.5%, '61~'80년 4.4%, '81~'93년 4.5%
지출 부문	급여지출	• 급여지출 = 수급자 수 × 연간 연금액 × 수급기간(65~84세, 20년)
	누수액	• 누수액 = 중도인출 + 이직 시 해지
추계기간 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계기간: 2006~2093년 * 2023년 이후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가정을 따름
퇴직연금 적립금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립금 = 보험료 + 운용수익 - (누수액 + 급여지출) - 완전적립금(누수액 미적용) = 보험료 + 운용수익 - 급여지출 - 실태반영적립금(누수액 적용) = 실태 퇴직연금 적립금(2023년 이후는 누수율* 적용) * 누수율 = 누수액 / 퇴직연금 적립금(2023년 기준)

○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, 완전적립금모형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(국민연금 장기수익률) 적용 시 2050년(2047년)에, 실태반영적립금모형에서는 2051년(2049년)으로 추정됨

2)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에서 산출된 값을 활용함

3)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, 1년 미만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어 일정 비율(조정율)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대상자를 추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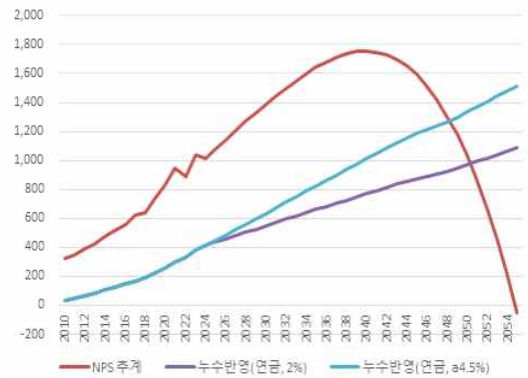
- 퇴직연금 적립금은 수지상등 원칙에 의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존재하는 한 기금소진은 되지 않으나, 국민연금금 저부담·고급여 체계여서 최고 적립시점인 2041년과 소진시점인 2055년 사이에 기금의 역전 현상이 나타남
 -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인 2055년 이후에도 가입자의 적립액과 수급자의 적립금 잔액(총적립액-기수급액) 만큼 쌓이게 됨
 - 기금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2050년 퇴직연금 적립금 수준은 완전적립금모형에 의하면 1,175조 원(퇴직연금 수익률 적용), 1,617조 원(국민연금 수익률 적용)이고, 실태반영적립금모형에 의하면 각각 970조 원, 1,335조 원으로 추정됨
- 한편, 동일 모형에서도 기금의 역전 시점이 달라지는 이유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추정한 모형이 국민연금수익률 추중 모형보다 2023년 이후 수익률이 2~3% 낮으므로 적립금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임

〈그림 3〉 퇴직연금 완전적립금과 국민연금 기금 추이
(단위: 조 원)



주: 퇴직연금 적립금의 국민연금기금 초과시점은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(2%) 반영 시 2050년, 국민연금 장기수익률 반영 시 2047년임

〈그림 4〉 퇴직연금 실태반영적립금과 국민연금 기금 추이
(단위: 조 원)



주: 퇴직연금 적립금의 국민연금기금 초과시점은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(2%) 반영 시 2051년, 국민연금 장기수익률 반영 시 2049년임

- 2050년을 전후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,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위상도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임
- 그동안 퇴직연금은 자산의 운용효율화에 맞춰져 있었던 경향이 있으나, 향후 적립금과 수급대상자 증가가 예상되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역할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연금수령을 원칙적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